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3.04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, 미국과의 긴장 속 중국과 재협력 기류(2.26)

-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강제 점령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유럽은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논의를 시작. 이로 인해 독일 등 EU 내에서 유럽-중국 간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

※ 올해 1월 뮌헨공대-베이징 칭화대 협력 확대 협정 체결, 2월 독일 대학 대표단이 홍콩·선전 방문하여 신규 협력 가능성 타진, 독일 메르츠 총리가 처음으로 중국 방문해 항저우 등 기술 허브에서 독일·중국 기업 방문

- 중국도 적극적 로비를 펼치는 등 유럽-중국 관계 및 전략적 선택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

※ 한편, EU는 최근 중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대폭 제한한 바 있음

- 그럼에도 미국과의 갈등을 이유로 중국 쪽으로 급선회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다수 제기됨. 일각에서는 대신 인도, 일본, 캐나다, 한국 등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중견·선도국과의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

○ EU, 과학 외교 및 연구 보안 강화 방안 발표(2.27)

- 집행위는 연구혁신을 통한 유럽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이익 보호와 개방적·안전한 협력,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조치를 발표

- EU 이사회는 과학 외교 프레임워크 권고안을 채택해 연구혁신 협력에서 EU와 회원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추진

- 또한 연구 보안 모니터 보고서와 글로벌 접근법 이행 보고서를 통해 연구 보안 기준을 제시하고, 공정·호혜적 국제 협력 및 녹색·디지털 전환 등 공동 과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

- (기타) ▲미국 과학자들, 중국보다 독일 협력자 선호(3.3) ▲정책 전문가들, 유럽경쟁력기금 재설계 필요성 제기(2.26) ▲체코, JRC 과학 장비 첫 국제 이전 수혜(2.25) ▲도시-농촌 혁신 격차: 농촌 지역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(2.27)